



포스텍 학교기업, 미국시장에 첫발

2007-05-17 11:24:31

포스텍 학교기업이 미국시장에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해 4월 포스텍(포항공대·총장 박찬모) 학교기업 1호로 출범한 NSB포스텍이 미국시장에 DNA 칩이나 단백질 칩의 기판으로 사용되는 유리슬라이드를 공급하며 세계 바이오시장을 향한 첫걸음을 옮겼다.

박준원 포스텍 화학과 교수와 포스텍 출신 홍봉진 박사가 이끌고 있는 NSB포스텍은 미국 바이오시장에 유리슬라이드 공급을 시작으로 연구용 DNA 칩, 암이나 결핵 등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칩을 판매하고, 최종 목표로 환자의 특성에 맞춰 진단할 수 있는 '맞춤형 진단 키트'를 제작해 수출할 계획이다.

NSB포스텍이 내세우는 기술은 '나노콘(Nanocone) 기술'로, 덴드론(Dendron)이라는 나노고깔을 결합시켜 생분자 간의 간격을 조절하는 기술이다.

박준원 포스텍 화학과 교수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 DNA 칩의 재료가 되는 유리슬라이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특정 DNA나 단백질을 나노고깔과 연결하면 질병 진단, 환경·동식물·식품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EBN스틸뉴스]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주)이비뉴스에 있으며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단기